





여성주의 시각에서 드리는 에큐메니칼 예배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끄신다
(요 17:23)

2022년 7월 21일(목) 오후 5시
한국기독교교회관 2층 조예홀



주최 WCC 제11차 총회 한국준비위원회
주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WCC 제11차 총회를 준비하며 드리는 여성주의 예배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끄신다”

인도: 최은영 목사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사무총장)

반주: 유정은 목사 (한국교회여성연합회 부장)

† 개회의 예전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끄시는 하나님,

회 중: WCC 제11차 총회를 준비하며 여성주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
심에 감사드립니다.

인도자: 차별과 혐오로 폭력 당하고 학대받는 세상의 모든 여성들과 함께 고통받
고 함께 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회 중: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끄십니다.

함 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
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요한일서 4장 16절, 새번역)

찬송

Dona Nobis Pacem,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Dona Nobis Pacem

Traditional

F C7 F C7

Do - na no - bis pa - cem pa - cem.

5 Bb F C7 F

Do - na no - bis pa - cem.

9 F C7 F C7

Do - na no - bis pa - cem.

13 Bb F C7 F

Do - na no - bis pa - cem.

17 F C7 F C7

Do - na no - bis pa - cem.

21 Bb F C7 F

Do - na no - bis pa - cem.

참회의 기도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딛고 일어나 각종 차별과 혐오, 성폭력으로 고통당하는 이웃들 곁에 서지 못했던 지난날의 과오를 고백합니다. 감추어진 불의를 더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합니다. 나와 다른 소수자들을 멀리하거나 낯선 이들을 낯설단 이유로 차별했던 우리의 죄를 참회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소서. 아멘 (1분 묵상)

*출처: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여성신학사, 「깨어진 침묵」, 2001, 중, 발췌 및 수정

용서의 말씀

인도자: “비록 산들이 옮겨지고 언덕이 흔들린다 하여도 나의 은총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으며, 평화의 언약을 파기하지 않겠다.” 너를 가엾게 여기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사야 54장 10절, 새번역)

회 중: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가 죄 사함의 은총을 입은 자로 살겠습니다. 아멘

† 말씀의 예전 †

화해와 일치 위한 기도

안미정 목사(한국교회여성연합회 총무)

말은이: 하나님,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회 중: 우리 여성들이 하나님께 의지하오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이 이기어 승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말은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기다리는 여성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회 중: 하나님, 여성과 남성이 함께 어깨 걸고 하나님의 길을 걸으라 하신 그 선한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정의와 평등의 하나님이시니, 빛나는 진리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가르쳐주십시오.

말은이: 하나님, 인류의 절반인 여성들이 제 몫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절반의 역량이 사장되고 있음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회 중: 남성들이 여성의 발목을 붙잡은 죄와 여성들이 우물쭈물 주저앉은 실수를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선하심으로 여성들의 손을 붙잡아 이끌어주십시오.

말은이: 하나님, 우리 여성들이 사회의 모든 기관과 기구들에서 쫓겨나고 배제되었던 억울한 형편을 생각하셔서라도 하나님의 반석 같은 뜻을 꺾지 말아 주십시오.

회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니까? 정의롭고 평등하며 조화로운 하나님의 법을 날마다 상고하고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생애를 보살피시며 그가 속한 공동체를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말은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의논 대상으로 삼으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회 중: 하나님만이 우리 여성들의 발을 온갖 차별의 올무에서 건지는 분이시기에 우리 눈이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기도와 봉사와 성서연구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가 교회의 정책을 기획하고 결의하는 모든 절차에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십시오.

말은이: 그러나 하나님, 아직도 이 땅에는 성차별과 억압의 검은 먹구름이 교회를 뒤덮고 있어서 교회의 의사결정에 여성 참여를 불허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회 중: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고, 여성의 능력과 인간성을 과소평가하는 자들이 우리의 마음에 고통을 더하니 우리를 이 아픔에서 건져주십시오. 이 땅의 여성들이 국가적으로도 남성과 균등한 교육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누리지 못한 현실도 유념해주십시오.

말은이: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 참여율이 아직도 낮지만, 여성들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말을 쏟아내는 지도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십시오.

회 중: 우리가 기뻐할 곳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정의와 공평의 하나님, 우리가 완전하고 올바르게 뜻을 펼치며, 각자 받은 달란트를 잘 활용하도록 지켜주십시오.

함 께: 이 땅에서 인구의 절반인 여성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며, 평등하게 교회, 국가와 세계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출처: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한반도에서 다시 살아나는 여성시편』(2005) 중, 여성시편 25편 수정 발췌.

성경봉독

마태복음 9:27-38 박윤옥 목사(기독교대한감리회 전국여교역자회 총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시는데, 눈 먼 사람 둘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면서 예수를 뒤따라 왔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눈 먼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다짐하셨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지역에 퍼뜨렸다./ 그들이 떠나간 뒤에, 귀신이 들려 말 못하는 한 사람을 사람들이 예수께 데리고 왔다./ 귀신이 쫓겨나니, 말 못하는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 무리가 놀라서 말하였다. "이런 것은 이스라엘에서 처음 보는 일이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는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 주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새번역)

에베소서 1:15-23절

이현아 목사((사)한국교회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총만케 하시는 분의 총만함입니다. (새번역)

말씀선포

민숙희 사제(교회협 부회장,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끄신다.’

† 드림(Offering)의 예전 †

집례: 이영미 목사(새가정·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 총무)

이끄미: 이한빛 청년(한국YWCA연합회 활동가)

드림으로의 초대

집례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끄심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제 젠더폭력/성폭력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함께 저항하고, 연대하기 위해 모두의 마음을 확증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회 중: 또한 목사님과 함께 하소서.

이끄미: (조각 그림이 들어있는 함을 들고 입장 한 후에 회중을 바라보며) 지금, 이곳에 함께 하소서. 아멘.

다짐의 기도

함께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다양한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유기적인 공동체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타인이 불행할 때 내가 행복할 수 없고 내가 고통에 신음할 때 타인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교회에서 성폭력 사건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강고한 가부장제 사회구조와 이를 방조해온 우리의 무관심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침묵으로 방관해온 까닭입니다. 일방적인 용서라는 이름으로 생존자의 고통에 찬 신음소리를 묵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주소서. 생존자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며 교회공동체의 성폭력 근절을 위해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회 성폭력으로 인해 하나님과 교회가, 교회와 사회가, 너와 내가 분리된 것을 바라보며,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교회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당신 앞에 다짐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을 믿고 따르고자 하니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단 한 사람의 존엄성도 훼손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하고 앞장서도록 인도하소서.

모든 폭력, 혐오와 배제로부터 안전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불의한 권력 구조와 어떠한 희롱과 성폭력도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강요된 용서를 바라고, 생존자들을 고통 가운데 머무르게 억압하지 않겠습니다. 자신들의 안위와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 생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악행을 멈추어 주시고, 생존자의 고통에 다만 함께하겠다는 다짐을 넘어 교회 성폭력 근절을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이 땅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처: 교회협 여성위, 2020년 교회여남평등주간 자료집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교회공동체” 중에서

연대와 다짐: 조각 그림 이어가기/ 참가자 고백

*참가자들은 이끄미에게 1개의 조각 그림을 받아서 무대 위에 놓인 그림판에 붙이면서 ‘개인의 다짐’ 혹은 ‘기도문장’을 고백한다.

나아감: 드림의 확증

WCC 제11차 총회 참가자 中 3인

조은아 전도사(예장 총대), 이새름 청년(기감 총대),
이정규 전도사(기장 청년참가자/서울성남교회)

(공동작품을 높이 들고 예배당을 천천히 돈 후에,
단상 앞에 서서 차례대로 고백하고 내려놓는다.)

말은이1: “평등 세상을 원합니다.”

말은이2: “화해와 일치의 세상을 원합니다.”

말은이3: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일어나) 함께: 우리가 더불어 살겠습니다. 연대하겠습니다.

헌금 드림

정옥진 장로(여성위원회 부위원장)

WCC 제11차 총회의 여성과 청년참가자(총대 제외)를 위해서 마음을 모은다.

감사기도

강은숙 목사(교회협 전 부회장,
WCC제11차총회 한국준비위원회 여성위원)

우리가 한쪽 팔을 잃고 고통에 소리칠 때
우리의 마음 절망으로 꺾이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사랑을 잃고 가슴을 찢겨 울 때
우리의 가슴 나약함으로 덮이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입술을 깨물 때
자유와 정의를 향한 뜨거움 식어가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가난과 굶주림에 쓰라려 넘어질 때
평등과 평화를 이루려는 믿음 작아지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다른 한 팔로 상처를 감싸며
두 무릎이 남았음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외로움 속에서 다시 기다릴 수 있는 것도
오직 사랑하는 마음뿐임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동터오는 새벽의 굳셈을 믿는 것도
어둠이 결코 오래 가지 않는 때문임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시린 바람 속에서 손에 손 맞잡는 것이
이 세상을 사랑으로 비추는 길임을 알게 하소서.

*출처: 도종환 시인의 ‘저녁기도’

† 파송의 예전 †

평화의 인사

인도자

서로 화해와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파송 찬송 Now go in Peace '평화 안고 나아가자'

Now go in peace

2

Now go in peace, now go in love from the Fa - ther a - bove.
 Va - yan en paz y en a - mor en el nom - bre de Dios.
 평 - 화 안 - 고 나 - 아 - 가 - 자 하 - 나 - 님 자 - 녀 - 여.

3

Je - sus Christ the Son stay with you till the day is done.
 Je - sús los/las pro - te - ja y al ca - er el dí - a
 구 - 주 예 - 수 - 님 언 - 제 - 나 함 - 께 하 - 시 - 고

4

Ho - ly Spir - it en - cir - cle you in all you think and do.
 los/las a - bra - ce el Es - pi - ri - tu al pen - sar y al o - brar.
 성 - 령 - 도 너 - 의 결 - 에 - 서 모 - 든 일 도 - 우 - 리.

Fine

Once a - gain, God's bless - ing be with us. A - men. Now go in
 Y que Dios nos dé su ben - di - ción. A - mén. Va - yan en
 주 - 의 은 - 총 안 - 에 살 - 기 - 를. 아 - 멘. 평 - 화 안 -

*출처: WCC제10차 부산총회 보냄 예배 중

파송사

최소영 목사(여성위원회 위원장)

말은이: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된 소식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살아내십시오. 다른 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시다.

함 께: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축도

최소영 목사(여성위원회 위원장)

〈광고〉

1.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과 참여하신 분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오늘 드림의 예전 시간에 만든 공동작품은 WCC 총회 기간 중, Waterfall of Solidarity and Resistance (연대와 저항의 폭포)를 위해 보냅니다. 이는 젠더폭력/성폭력에 저항하고 피해자 회복을 위해 연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3. 오늘 드린 헌금은 WCC 총회에 참가하는 여성/청년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4. 예배 후에 WCC 제11차 총회 참가 여성/청년들과 인사/격려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설교문>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끄신다.’

민숙희 사제(교회협 부회장,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번 WCC 총회의 참 아름다운 주제입니다. 이번 총회를 통하여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하느님 안에서 일치를 이루고, 한 몸인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며칠 전, 우리 교회 화단에 핀 메리골드 꽃을 보았습니다. 작년 봄에 친구에게 메리골드를 얻어다가 교회 화단에 심었는데 점차 시들더니 스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 또다시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었는데 더 넓게 퍼져 살아난 메리골드가 꽃을 보여준 것입니다. 저는 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나서 꽃을 보여주다니, 나의 무관심에도 당당히 살아나는 생명이 존경스럽습니다. 아마 이 메리골드는 내년엔 더 넓게 퍼져 더 많은 꽃을 보여줄 것입니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전 세계는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니어서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당황하고, 극복을 위해 새로운 선교 비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만 충분한 대안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에 오히려 하느님께서 새로운 마당을 만들어보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급급했던 교회, 기후 위기를 알아차리지 못한 교회, 고리타분한 관례에 묶인 교회, 성차별을 외면하고 조장한 교회, 성폭력에 침묵한 교회를 갈아엎고 하느님이 주인 되시고 주관하시는 교회로 회복하라는 명령입니다.

여성들은 그동안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직면하고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여성들의 연대는 작은 자 같으나 작지 않았고, 약한 자 같으나 강했습니다. 이 강인한 연대가 때로는 교회 내 기득권의 공격을 받기도 했으나 하느님의 정의는 늘 우리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 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 9:35~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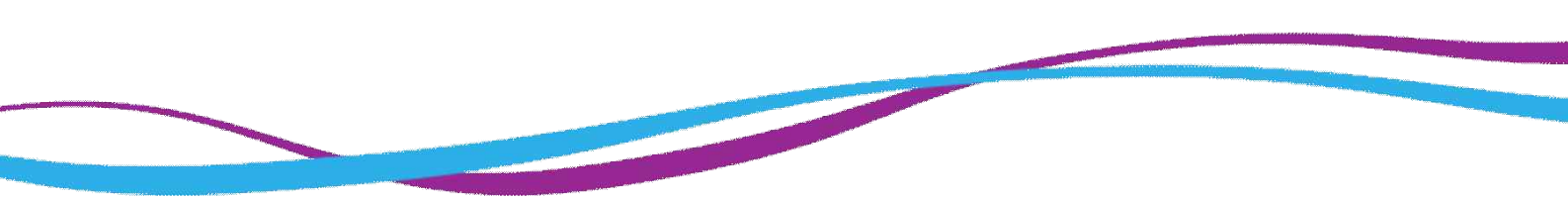
교회 안에는 '복음', '사랑'과 같은 언어들만 넘쳐나지만 주님의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소외당하고, 차별받고, 폭력에 노출된 생명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복음 안에서 위로받고 행복하려고 교회를 찾지만, 남성화된 교회에서 여성들은 여전히 차별적 성역할 고정화의 편견에 맞서야 하고, 여성의 리더십을 가치 없게 여기는 교회 문화 안에서 배제당하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신앙의 인도자인 성직자로부터 성폭력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는 주님의 복음 안에서 모든 생명이 자유롭고 해방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예수의 복음은 약자의 자리에서 선포됩니다. 기진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 전진하도록 도우십니다.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모두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갈 3:28)

여러분, 우리는 갈라지고 깨진 이 시대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세상이 화해하고 일치하도록 행동하라는, 하느님께 받은 소명입니다. 그 행동방식은 오로지 예수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는 기득권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작은 자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과 함께 낮은 자리에 앉으셨으며, 그들에게 죄 없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동등한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했던 여성들을 제자 삼으시고 동역자로 세우셨으며, 더럽다고 피하는 이방여인을 전도자로 삼으신 분입니다. 당시에는 감히

상상할 수 없던 일로 남성인 당신 발채에서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여성을 칭찬하시고, 일곱 귀신 들렸던 기구한 여성을 당신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신 분입니다.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느님의 질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 길을 함께 가자고 부르십니다.

예수에게는 그 누구도 죄인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정죄하며 손가락질하고 공격하는 자들을 죄인으로 여기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설 것인가는 명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면서 다른 존재에 대해 정죄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하느님인 것처럼 함부로 판단하고 스스로 의롭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화해와 일치를 방해하며 하느님 나라의 실현을 방해합니다. 모든 생명을 차별 없이 받아들이신 예수와 같이 우리들도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룹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에페 1:23)

차별적인 사회에 맞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치기도 했습니다. 가부장적 사고에 머물러 시대에 흐름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담합하는 모습을 볼 때 때론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참 오랜 세월 우리는 차별과 불의함에 맞서 싸워왔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입고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 모든 걸림돌이 우리의 연대로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권력을 얻기 위해 행동하지 않고 오로지 이 땅에 하느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기에 우리를 통하여 하느님의 계획이 완성되리라 믿습니다.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비뚤어진 하느님 세상을 바로 잡으려는 우리들의 연대를 그들은 비웃었지만 우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무관심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싹을 틔워냈습니다. 땅속에서 가려진 손을 맞잡아 연대하는 우리는 앞으로도 더 진보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화해하고 일치하는 교회를 위해 전진할 것입니다. 낮지만 점점 넓게 퍼져 더 많은 꽃을 피워 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끄신다’는 이 주제를 마음 깊이 품고 우리 힘을 내어 길을 갑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